

2016 부평 지속가능발전주간

부평 음악·융합 도시 포럼

음악중심의 문화도시를 열어가는 부평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자생력 있는 음악중심의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향후 과제 및 문화도시 부평을 전망해 보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 시 | 2016. 06. 09. (목) 14:00~17:00
장 소 | 부평1동 주민센터 4층 문화마당
대 상 | 전문가, 문화계 관련자, 부평에서 활동하는 동호회,
예술가, 관심 있는 분 누구나
문 의 |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팀 032-500-2043

부평 음악 · 융합도시 토론회

1. **홍대앞 문화예술 생태계의 변화 과정을 바탕으로
바라본 부평 음악 융합 도시 계획의 지역성, 자생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2. **부평, ‘문화적’ 도시로 가는길 - 부평 문화도시 사업
추진에서의 쟁점**

프로그램

사회 : 전용덕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사업팀 팀장)

시간	내용		
14:00 ~ 14:10	인사말		
14:10 ~ 15:00	발 제 1. 홍대앞 문화예술 생태계의 변화 과정을 바탕으로 바라본 음악 융합 도시 계획의 지역성, 자생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정문식 홍대앞에서 시작해서 우주로 뻗어나갈 문화예술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이하 홍우주 협동조합)		
15:00 ~ 15:50	발 제 2. 부평, ‘문화적’도시로 가는 길 － 부평 문화도시 사업추진에서의 쟁점		
	추미경 문화다움 대표		
15:50 ~ 16:00	휴 식		
16:00 ~ 16:40	토 론		
	좌 장	이영범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토 론	박준흠	사운드네트워크 대표이사
		유세움	문화공작소 세움 대표
16:40 ~ 17:00	질의응답		

‘홍대앞 문화예술 생태계의 변화 과정을 바탕으로 바라본
부평 음악 융합 도시 계획의
지역성, 자생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정문식

(홍대앞에서 시작해서 우주로 뻗어나갈
문화예술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1. 서론

현재 한국의 음악산업은 K-pop 한류로 대표되는 대형 기획사 중심 댄스형 아이돌 음악 위주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홍익대 주변을 기반으로 하는 인디음악씬은 산업적 성장의 정체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심화로 인한 인프라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다. 이러한 인디음악씬의 위기는 음악산업 생태계의 기초인 자생적 음악씬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음악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음악산업이 갖고 있는 대형 자본 중심 편향성과 시장 불균형의 현실적 반영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 부평구에서 오는 2020년까지 추진하게 될 ‘부평 음악 융합 도시’ 계획은 홍대 주변을 비롯한 전체 인디음악씬과 한국 음악산업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음악산업의 과도한 서울 중심성을 극복하고 음악산업의 기초단위로서 인디음악씬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인 것이다.

하지만, 문화도시 조성을 통한 도시 재생의 성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산업 진흥 정책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는 이 계획에 있어 필수적인 가치인 자생성과 지역성 확보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본 발제문에서는 기존의 문화도시 개념 및 문화산업(음악산업)과 부평 음악·융합도시 계획의 관계성을 고찰함으로써, 이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요건들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 거의 유일한 문화예술 지역 변화 과정의 사례라 할 수 있는 인디음악씬을 비롯한 홍대앞 문화예술 생태계의 생성과 발전 과정은 유사한 지역 문화예술계의 변화와 정책, 제도를 고찰하는데 유효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제문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서의 ‘문화도시’, ‘문화산업’ 개념을 바탕으로 이 계획을 고찰하고, 자생적으로 발생한 ‘홍대앞 문화예술 생태계’의 변화과정을 예시로 삼아 부평 음악·융합도시 계획이 자생성과 지역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2. 문화도시 개념과 음악산업적 관점에서의 부평 음악·융합도시 계획

1) 문화도시 개념 측면에서 바라 본 부평 음악·융합도시 계획¹⁾

가) 문화도시의 개념

도시와 문명, 문화는 같은 뿌리를 가진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즉 도시에서 문화와 문명이 발생하고 문명과 문화는 도시 발달을 촉진하는 요소였던 것이다. 기원전 6-7000년 경의 농업혁명은 인류의 정착생활을 가능하게 하였고, 1760-1830년경의 산업혁명은 대량생산을 통해 제품 생산단가를 낮추고 수공업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게 되었다. 특히, 산업혁명은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인구 유입을 가져와 도시화의 원인이 되고, 도시의 변화와 근대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처럼 도시는 근대 이후 사회변화와 발전의 중심공간으로 자리 잡아 왔다.

'문화도시'라는 용어는 유럽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 공장지대의 공해로 인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심재생 사업의 핵심요소로 문화와 예술을 도입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해외 문화도시 사업의 기본 방향은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로 구분될 수 있으나 이 두 경향은 서로 엄격하게 구분되기보다는 공유하는 측면이 강하게 드러난다. 즉, 단일하게 정의될 수 없는 '문화'의 개념적 측면과 문화를 기반으로 한 도시정책이 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는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징적인 문화유산을 보존, 유지하는 활동을 포함한 도시 공간과 구성원들에게 체화되고 규정되어 있는 '역사적 정체성'이 있다.

둘째, 그 도시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도시공간에 체화되어 있는 '특징적인 공간성'이다. 즉, 문화적 잉태가 공간 속에 체화되어 있고, 그 체화된 잉태가 특징적인 공간문화를 만들어낼 때 문화도시가 된다.

셋째, 예술을 창출해낼 수 있는 다양한 문화시설과 문화공간 등의 공공 인프라를 바탕으로 하는 예술 문화 체험, 행위 이벤트 등이라 할 수 있다.

나) 문화도시의 기능

문화도시는 경제와 산업, 도시구조, 기반 시설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도시의 역량, 수준 극대화에 대한 목표 설정과 계획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

1) 김혜경 (2015) “문화 거버넌스가 문화도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부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P11-27, 요약 인용.

다.

문화도시의 기능은 크게 국가정책으로서의 기능과 지역정책으로서의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문화주의적 관점과 경제주의적 관점의 상호작용 효과로 나타나게 된다.

먼저 국가정책으로서의 기능은 단순 정치적 선언으로서의 문화도시 개념과 국가와 문화 사이의 상호 작용이 국가구조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이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지역정책으로서의 기능은 첫째, 해당 지역의 문화시설은 문화적 상징성과 도시경제에 영향력 있는 흡입력을 가질 수 있다. 둘째, '문화특구'는 지방발전의 중심구 역할을 하며, 셋째, 문화산업, 특히 공연예술은 지방경제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넷째, 공동체 사회의 주체성, 창조성, 유대감과 생동감을 함양하고 그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관습을 통해서 도시 발전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Throsby, 2001:181).

보다 구체적인 경제효과로서의 기능은 첫째, 지역 내에서 문화상품과 서비스가 소비됨으로써 소득 상승과 이에 따른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 증가로 지역 성장에 공헌할 수 있다. 둘째, 음식점, 운송서비스 등 관련 사업이나 개인적 소득에 간접적 영향을 주며, 셋째, 문화활동 확장에 따른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들 수 있다.

다) 문화도시의 유형과 부평 음악·융합도시의 적합성

문화도시의 유형은 각 도시가 추진하는 전략의 우선순위에 따라 크게 축제형, 랜드마크형, 문화벨트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1) 축제형

축제형 문화도시는 지역축제를 통해 사람들의 교류가 일어나고 지역적 소속감과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관광을 강화하는 체험형 전략으로 문화도시 전략의 가장 대표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지역개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화상품 혹은 산업으로 인식되는 도시축제를 중심으로 지역과 국가 간의 상호 교류가 일어나면서 서로의 문화를 소비하고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일본 삿포로의 눈 축제, 독일 베를린의 러브 퍼레이드라 불리는 야외 테크노 음악 축제, 프랑스 낭시의 실험적 연극축제인 '국제 대학 연극제'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겠다. 국내의 경우 세계 4대 축제의 반열에 올라 있는 '보령 머드 축제'를 예로 들 수 있다.

(2) 랜드마크형

문화도시의 시초는 뛰어난 자연환경 내지 오랜 역사의 문화재를 바탕으로 한 문화적 인프라인 랜드마크를 만들어 도시민들 삶의 질적 향상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랜드마크의 조성은 도시 이미지를 쉽게 인지시킬 수 있는 문화도시 전략의 대표적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랜드마크형은 천연 자연환경 자체를 이용하거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고급 호텔이나 상징적인 건물을 짓는 방법, 박물관이나 전시관 같은 예술 문화를 이용한 유형, 사원, 대성당 등의 역사성이 있는 문화유산을 이용한 유형, 혹은 처음부터 관광 목적의 테마파크를 조성, 이용하는 유형이 있다. 그리고, 가로 환경 재생을 통해 문화도시로 거듭나고자 하는 유형도 랜드마크형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천연 자연환경을 활용한 사례로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한국의 제주도 등을 들 수 있고, 다수의 미술관과 박물관을 보유한 프랑스의 파리는 예술 문화를 이용한 유형이라 할 수 있으며,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이나 로마의 콜로세움 등은 역사성이 있는 문화유산 이용 유형의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은 테마파크 조성 유형의 예시이다.

(3) 문화벨트형

도시 내 몇몇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지역을 조성해 각각의 공간을 연결함으로써 문화적인 도시환경을 만드는 방법으로, 문화적 요소들이 밀집되어 있거나 문화적 특성 지역을 활용성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각각의 문화시설을 연결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문화벨트 유형에는 그 도시의 문화재나 역사 문화를 보존하는 형태, 주요한 전략적 거점에 문화시설을 입주시켜 주변지역을 바꿔가는 센터형도 포함된다. 이러한 전략은 대학로나 인사동 거리와 같은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유형과 파주 헤이리 문화마을처럼 민간 주체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문화 단지가 조성된 유형, 전주 한옥마을이나 경주처럼 관광특구나 지구로 지정된 유형으로 나뉘볼 수 있다.

(4) 부평 음악융합도시 계획과 문화도시 유형의 관계성

2015년 6월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제시한 부평 음악·융합도시 기본계획안을 살펴보면, 애스컴이라는 부평의 문화유산 활용 전략과 음악 관련 축제, 이벤트 등의 콘텐츠 생산 전략, 음악 창작 소비공간 조성을 통한 공간, 장소 전략 등을 융합한 ‘부평 문화벨트 조성계획’을 최종적 전략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

는 앞서 언급한 문화도시 유형들 중 문화벨트형에 해당된다.

기존의 부평아트센터, 부평공원, 백운역 생태공원과 새로 조성 예정인 'BP음악산업센터', '부평 3동 음악동네', '도심 속 아뜰리에' 등의 공간, 시설들을 묶어 부평만의 문화벨트를 조성한다는 이 계획은 일견 타당성이 있다 할 수 있겠으나, 여타 다른 문화지구 조성 계획이나 문화 기반 도시 재생 계획들처럼 공간과 시설 등 하드웨어 중심 계획의 성격이 강하다. 이 같은 하드웨어 중심 조성, 건설 계획은 문화지구정책이나 계획에 있어 우선시되어야 할 문화 활동과 활동 주체에 대한 고민이 우선순위에서 뒤쳐져 있기에 계획의 실행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상황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부평 음악·융합도시 계획의 경우 음악중심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실행 주체와 수혜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려가 된다.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의 실행, 수혜 주체들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그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문화벨트 조성 사업의 실효성 있는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2) 음악산업적 관점에서의 부평 음악·융합도시 계획²⁾

가) 문화산업과 문화도시

21세기 들어 창의력, 상상력이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창조경제 시대로 접어드는 가운데, 현재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 또한 '창조경제'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흐름은 각 국가와 지역단위에서의 발전 척도 또한 단순한 산업 단위 경제에서 문화와 창의성이 중시되는 소프트파워 단위 창조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역 경제에서 문화산업은 타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주민에게는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최근 많이 조성되고 있는 '문화도시' 내지 '창조도시'의 경우 문화를 기반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양상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화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Florida, 2003).

문화산업의 발전에 있어 유효한 경제권역 이론은 도시 네트워크 경제론으로서, 기능적으로 특화된 도시나 지역들이 상호보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생산과정상 밀접하게 연관된 전문화된 공간이 파트너십을 형성한다. 이러한 지역 간 연계의 발전에 따라 분산적 구조에 기반을 둔 수평적 네트워크 도시로 발

2) 이병민 (2010) "광역경제권하에서의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운용방향과 거버넌스 재편 전략" 한국문화경제학회 '문화경제연구' 제13권 제2호 P96-108, P121-122 요약 인용.

전하여 구성 도시 간의 상호 협력, 지식 교환, 창조성의 발현, 상호 성장의 동적 상승효과 등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네트워크 도시로의 발전은 문화산업과 같은 창의적 산업과 관련성을 크게 가질 수 있게 된다.

부평 음악·융합도시의 경우, 인접해 있는 인천의 구도심이라 할 수 있는 중, 동구 내지 부천시와의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각 지역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음악 문화 관련 인프라들을 함께 활용하는 시너지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나) 문화산업클러스터

클러스터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들의 밀접한 집단’으로, 밀집(density), 상대적 근접성(relative nearness), 유사성(similarity) 등이 주요 개념을 이룬다. OECD에 따르면 클러스터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 사슬에 연계된 독립성이 강한 기업들과 지식생산기관(대학, 연구기관, 지식 제공 기업 등), 연계조직(지식 집약 사업서비스, 중개 기관, 자문 등) 및 고객의 네트워크’로 정의하고 있다(남기범, 2004). 경제용어적으로는 ‘상호 연관관계가 있는 기업과 기관들이 일정 지역에 모여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단순한 밀집이 아니라 모여있는 구성 주체들 간에 다양한 채널이 형성되고 활발한 정보교류가 일어나 지식과 정보의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정미강, 2010).

문화산업클러스터는 일정한 공간에 문화 산업 관련 업체와 기관들이 상호 연계된 집합체를 의미하는데, 문화사업의 발전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 지역 문화산업체, 문화예술계 등 관련 기관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형태를 지칭한다. 전통적인 구매자-공급자 관계, 공통의 기술, 구매자, 유통경로 등에 연계된 산업 집단을 지칭하는 산업클러스터의 기능을 보유했다. 문화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위 사업체, 이와 상호의존적 관계를 형성하는 단위 사업체 및 관련 기구와 조직체 등의 집합체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산업클러스터에 포함되는 문화, 창조산업의 범위는 영화, 비디오, 음반, 출판, 멀티미디어, 행위예술, 패션, 산업디자인 등이며, 상품적으로는 창조적 상상력과 문화적 혁신의 산물인 상징재의 생산, 유통, 소비와 관계하는 모든 산업과 상업적 행위를 포함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문화산업은 스스로 클러스터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생산에 있어 노동력을 자본으로 쉽게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문화산업클러스터 형성은 규모의 경제성보다는 범위의 경제성을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범위의 경제는 생산자들 간 공간적인 근접에 의해 달성되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문화산업의 특성상 생산시설의 공유, 공동고객의 유치, 공동 마케팅 등의 전략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산업의 인력들은 창작 과정이 주변 환경의 심미적 요소를 포함한 그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과 문화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짐으로써 주요 거주 지역에서 문화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구문모, 2001: 20).

클러스터의 지속 가능성에 있어 공식, 비공식적 네트워크 상의 상호작용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데, 문화산업의 경우 내부 구성원의 비공식적이고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공식적 네트워크는 상호 거래 관계 형성에 중요한데, 연관 기업들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각 기업의 전문분야에 따라 작업을 나눠 벤처기업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비공식적 네트워크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의미하나 상거래를 전제로 하지 않는 구별점을 갖고 있으며, 구성원 간 신뢰, 상호주의 관계, 암묵적 코드 등을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문화산업의 효과적 수행에 있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즉, 문화산업의 창작 과정은 일정한 장소를 배경으로 창작자들 간 상호 비공식적인 대면 접촉과 대화의 결과로 얻어지는 정보와 경험의 활발한 교류, 기회의 발굴 및 신뢰 구축 등에 많이 의존한다고 하겠다.

다) 음악산업적 관점에서의 부평 음악·융합도시 계획

현재 공개되어 있는 부평 음악·융합도시 계획 중엔 ‘밴드 페스티벌’, ‘인디음악 공연 지원 사업’, ‘음악산업센터 조성’ 등 음악산업과 연관성을 가지는 세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중음악 중심의 문화도시 창출 계획은 국내 음악산업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좁게는 지역 내부의 음악산업, 넓게는 한국의 음악산업과의 관련성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부평 음악·융합도시 계획의 산업적 목표에 따라 사업의 내용들이 달라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하지만, 기초 계획의 내용에 있어선 음악산업 관점의 목표와 내용의 구체성은 아직 확보되어 있지 않다.

‘부평 미군 기지 ASCOM의 역사를 기반으로 한 밴드 음악 내지 인디음악에 대한 지원 및 부흥’이 부평 음악·융합도시 계획의 핵심 요약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사업 내용의 근거와 미래의 성과에 대한 예측 설정이 막연하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고 보인다. 이 사업에 있어 밴드 음악 내지 인디음악은 지원의 대상이라 할 수 있지만, 과연 그 지원이 음악산업에 어떠한 구체적 영향을 미

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보이며, 현재 국내 음악산업 환경 속에서 이러한 음악의 ‘경제성’ 내지 ‘수익성’에 대한 분석과 전망 또한 설정되어 있지 않아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음악산업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사업 계획과 목표의 설정은 문화산업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대개의 문화도시 사업 계획이 설정하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최종 목표와도 관계되어 있다. 지역 내 음악산업의 활성화를 시작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거시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즉, ‘지원 이후 활성화’라는 당위가 아닌 ‘산업적 영향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산업적 영향력은 지역 내 음악산업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음악도시계획의 수혜자이자 참여자인 음악 창작 주체들을 유인할 수 있는 요소들 또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부평 음악·융합도시 계획의 산업적 지향에 있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앞서 언급한 문화산업클러스터 사업의 일종인 ‘음악산업클러스터’라 할 수 있다. 창작, 공연, 음반 음원 제작, 음악 교육 목적의 공간들을 근접한 권역에 조성, 유치하고, 산업 관련 주체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부평이라는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음악 상품을 배출하는 것이 부평음악도시 계획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부평 음악·융합도시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선 음악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포함한 음악산업 관점의 전략적 목표 설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3. 인디 음악 중심 홍대앞 문화예술 생태계의 역사와 부평 음악·융합도시 계획에 대한 시사점

홍대앞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의 특성은 ‘자생’과 ‘독립’의 두가지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다. 90년대 이후 사회, 경제적 환경과 홍대 미대로 대표되는 지역적 환경과 새로운 세대의 문화예술 생산 소비 주체들의 등장이라는 요소들이 어우러져 발생한 한국 문화예술의 ‘전환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고 취향 중심의 소비가 커뮤니티 형성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기존의 권력이나 사회, 경제적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문화예술씬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 문화예술역사에 있어 권위주의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하며, 문화예술 활동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문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출발점이었다 하겠다.

하지만, 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체제의 강화로 인한 사회 경제적 변화와 상대적으로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한 정권의 등장은 홍대앞의 자생적이고 독립적인 문화예술 생태계에도 영향을 끼쳤다. 경제적 불안정성은 고용 불안과 실질 소득의 감소를 불러왔고, 문화 소비 또한 정체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는 극심한 부동산 투기를 야기했고, 이러한 경향 속에서 주택시장에서 상가건물시장에 대한 투자 방향의 전환을 가져와 지대상승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동지내몰림’이라고 하는 문화예술 주체들의 지역 이탈 현상을 발생시키기에 이르렀다.

약 20년에 걸친 홍대앞 문화예술생태계의 변화과정은 한국 문화예술 생태계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유효한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변화과정을 통해 향후 시행 예정인 여러 문화도시, 문화산업지구 사업에 충분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제문에서는 인디음악 중심의 홍대앞 문화예술생태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고찰을 통한 부평 음악·융합도시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1) 인디음악을 중심으로 한 홍대앞 문화예술 생태계의 형성 과정

가) 80-90년대

1980년대 미술학원 중심 거리로 형성된 홍대주변 지역의 변화에 있어 84년 홍대입구 지하철역의 개통과 87년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설립이라는 두가지의 계기가 중요성을 갖는다. 순환선인 지하철 2호선의 개통은 홍대입구-신촌-이대입구로 이어지는 대학가의 연계를 통한 청년문화권의 형성을 가능하게 했고, 시각 예술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예술학과의 설립은 90년대 이후 홍대 주변으로 미술가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 주체들이 모여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고, 개인주의적 성향을 드러낸 최초의 세대인 90년대 ‘신세대’, ‘오렌지족’ 등의 새로운 청년 세대들이 등장한다. 90년대 초반, 국내 청년문화의 중심지였던 신촌 지역에서 대대적인 유흥가 단속이 이뤄진 이후, 압구정 중심의 오렌지족 문화와 유사한 성향의 소비문화가 형성되던 강북의 홍익대 주변으로 청년문화의 중심이 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80년대부터 형성되어 있던 홍대 주변의 ‘작업실’들은 문화예술 주체들의 거점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이는 90년대 이후 홍대지역만의 특색있는 문화예술 공간-라이브클럽, 댄스클럽 등으로 확장,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90년

대의 홍대 주변 특유의 문화예술 공간들에서 자생적이고 독립적인 문화예술 활동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디음악’이다.

한국 인디음악의 시작은 95년 4월 ‘드럭’에서 열렸던 커트코베인 추모공연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공간-클럽 드럭’과 ‘주체-밴드 크라잉넛 등’, ‘활동-공연’이라고 하는 3가지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 발생한 문화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후 96년 9월 한국 최초의 독립음반인 ‘아워네이션 1집’의 발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한국 인디음반 발매와 인디뮤지션 배출이 진행되었고, 홍대 지역 중심으로 한 라이브클럽들의 잇따른 개업과 인디음악 제작을 위한 인디레이블 설립 등 인디음악씬의 인프라들이 홍대 지역 중심으로 구축되기 시작한다.

나) 2000년대

2000년대 홍대앞 문화예술생태계 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이벤트는 2002년 월드컵이라 할 수 있다. 서울월드컵 경기장이 상암에 건설되면서, 마포구 전반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홍대앞에 형성되기 시작한 문화예술 활동들과 공간들을 외국인 대상 관광자원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는 월드컵 관련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2002년 6월부터 시작된 ‘프리마켓’이나 2001년 4개소의 클럽들이 연합하여 만들어진 ‘클럽데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이전 시기 비공식적이고 즉흥적인 성격이 강했던 홍대앞 문화예술 활동들이 공식적이고 정기적인 활동으로 변화하게 되는 사례라 할 수 있으며, 미디어의 관심과 노출을 통해 홍대앞 문화예술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인디음악씬 또한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되는데 대표적 사례로 ‘홈레코딩의 대중화’와 ‘실용음악과의 증가’를 들 수 있다. 홈레코딩의 대중화는 음원, 음반 녹음의 편의성을 증대시켜 시장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유발효과를 통해 인디음반의 발매량과 다양성을 증대시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실용음악과의 증가는 인디씬으로 진입하는 뮤지션들의 양적 확대를 유발하였고, 이는 인디음악씬 초기의 록음악 위주 장르적 특성을 다양한 장르로 확장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따라서, 2000년대 이후 더욱 다양한 성향의 인디레이블들이 설립되고, 새로운 인디음악씬의 스타들이 탄생하게 된다.

그리고, 인터넷의 발달과 인디씬의 양적 확장은 인디음악씬에서의 성공 경로 또한 새롭게 구성하게 되는 사례를 만들어내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장기하

와 얼굴들’과 ‘붕가붕가레코드’라 할 수 있다. 2008년 ‘싸구려커피’로 데뷔한 장기하와 얼굴들은 특유의 키치적 분위기와 퍼포먼스가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 등을 통해 전파되어 미디어의 관심으로 이어진 첫 번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판따라질’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출발한 ‘붕가붕가레코드’의 사업 방식은 한국 인디음악씬의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을 제시한 사례라 하겠다. 즉, 대규모 투자에 뒤이은 대규모 수익창출의 기존 대기업 관점의 비즈니스 방식이 아니라 소규모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소규모 기업에 적합한 방식을 제시한 것이며, 인디음악씬에서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새로운 가치에 대한 주목을 이끌어내었다. 또한, 미디어 노출과 활용을 통한 장기하와 얼굴들의 성공은 이후 십센치, 국카스텐 등 유사한 성공 사례로 이어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2000년대 이후 홍대 인디음악씬의 변화는 ‘다양화’, ‘주체 확대’, ‘새로운 활동, 비즈니스 방식의 도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2010년 이후 홍대앞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지역적 영향

본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³⁾을 가리킨다. 이러한 본래의 정의로 비추어 보면 홍대앞 지역의 변화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는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혹은, ‘한국적 젠트리피케이션’이나 ‘문화백화현상’ 등 부동산 지대 상승에 초점을 맞춘 개념화가 더 적합할 것이다. 어쨌든, 2010년 이후 홍대앞 지역의 임대료 상승 폭은 서울 최대치를 기록중이며 이에 따른 지역의 변화는 급속도로 진행중인 상황이다.

부동산 임대료 상승은 기존 홍대앞의 소규모 문화공간 내지 취향 중심 커뮤니티 영업공간들의 홍대 지역 이탈을 불러오게 되었다. 2014년 1월에 서울시 창작공간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발간된 ‘홍대앞 문화예술공간 가이드북’의 2013년 홍대앞 공연공간 현황에 따르면 총 43개소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2016년 현재 이들 중 13개소가 폐업한 상황이다. 이러한 공간의 감소, 이탈현상은 문화예술 주체들의 감소와 이탈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지역의 성격 변화 또한 일어나게 된다. 즉, 한때 자생적이고 독립적인 문화예술의 메카로 인식되었던 ‘홍대앞’은 관광객들의 일시적 방문지이자 단순 유흥 목적의 방문지로 그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문화예술 창작자 등 지역 문화예술의 공급

3) 2016 doopedia 두산 백과 사전 인용

주체들의 수적 감소 뿐 아니라 지역을 방문하고 문화예술 활동들을 향유하는 소비주체들의 감소와 방문객들의 성향 변화까지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홍대앞’에서 주로 소비되는 활동 내지 재화들의 변화로 인한 지역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지역의 변화는 거의 20년에 걸쳐 구축된 국내 유일의 ‘자생, 독립적 문화예술 생태계의 역사성과 지속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나아가 한국 문화예술계의 다양성 유지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임대료 상승과 상업화의 영향으로 인한 홍대앞 문화예술생태계의 변화는 단지 홍대앞이라고 하는 지역의 문제뿐 아니라 한국 문화예술계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홍대앞 내부의 활동 주체들이나 중앙정부 및 광역, 기초 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들은 이러한 현상을 단순 지역 문제로 한정지어 인식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문화도시 사업을 지역사업의 범위로만 한정지을 수 없고 문화산업적인 영향을 고려해야만 하듯이, 홍대앞 문화예술생태계의 문제 또한 국내 전체 문화예술계를 고려한 시각 속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3) 홍대앞 문화예술 생태계의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 구축

극심한 상업화로 인한 이탈현상과 생태계 붕괴현상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홍대앞을 지키고 있는, 홍대앞으로 진출하고 있는 문화예술 주체들이 존재한다. 지역 생태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홍대앞 문화예술의 가치들은 아직 유효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홍대앞 문화예술계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조직이 바로 ‘홍우주 사회적 협동조합(홍대앞에서 시작해서 우주로 뻗어나갈 문화예술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홍우주 협동조합은 2000년대 홍대앞 문화예술계의 대표체, 협의체 조직 시도의 역사를 이어받아, 2013년 서교예술실험센터의 민관 거버넌스 운영단 체제 활동의 기반과 폐관위기 극복 활동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현 시기 홍대앞 문화예술계를 망라하는 대표 조직이라 할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강조되고 있는 ‘협치-거버넌스’라는 개념을 최초로 적용했던 공공 문화예술 공간이 바로 서교예술실험센터였고, 여기서 거버넌스 체제를 기획하고 실험했던 주체들의 경험이 거버넌스에 대한 홍대앞 문화예술 생태계의 선형적 자산을 축적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거버넌스는 문화예술 영역의 법, 제도, 정치에 있어 특히 유효한 개념으로,

거버넌스 시스템을 통해 문화예술 정책이 가질 수 밖에 없는 현장과 정책, 제도의 시차를 줄이고 현장 체감 정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민관 거버넌스 시스템의 원활한 실행은 관이나 행정, 정책과 제도에 대한 민간의 신뢰도를 상승시키고, 현장 주체들의 자발적 관심과 활동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

민관 거버넌스와 더불어 중요한 거버넌스의 개념이 바로 ‘민민 거버넌스’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민간주체들간의 단순한 네트워크를 넘어 지역 문제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해결을 위한 공동의 목표 설정 및 공동 행동으로 이어지는 매우 높은 수준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사실상 홍우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이 여기 있다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 홍대앞 문화예술계 내부에 구축되는 민민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민관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높은 수준의 민관 거버넌스는 ‘민간에 의한 자치’에 가까운 개념이다. 즉,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명제처럼 행정 주체가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 환경을 기반으로 민간 주체들의 자율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구조를 말한다.

홍대앞 문화예술계의 변화역사와 현재의 위기적인 상황을 반추해볼 때, 지금과 같은 극심한 상업화 현상이 홍대앞을 뒤덮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민간 활동 주체들간의 민민 거버넌스, 행정 주체들과의 민관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90년대 홍대앞 문화예술이 시작될 당시의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가치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전환, 발전되지 못한 채 개별적 가치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홍대앞, 나아가 한국 문화예술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업화-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거버넌스 구조 기반의 선제적 대응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것이 부평 음악·융합도시 사업 등의 문화도시, 문화지구 사업에 있어 거버넌스 구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는 이유다.

4. 지역성과 자생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평음악 융합도시 계획의 성공 조건

‘문화’라는 개념을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예술 행위’보다 확장된 ‘삶의 방식’이라고 바라볼 때, 행정 주체가 추진하는 문화도시 사업이나 문화기반 도시 재생 사업 등의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는 대상 지역에 적합한 ‘지역성’의 획득 여부와 지역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자생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 흔히 시도되는 행정주체에 의한 도시 계획 사업의 경우

주민, 시민 주체들의 자발적 행위 기반이 아닌 Top Down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의 중요성과 유발 효과 등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는 주체들과 유리되는 경우를 종종 만날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부평 음악·융합도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요건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볼까 한다.

1) 문화도시 사업으로서 명확한 사업의 목표와 참여 주체, 수혜 대상 설정

부평음악융합 도시 사업은 ‘음악’ 기반의 정책적 수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ASCOM의 주둔 역사를 바탕으로 한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전략은 당대의 영향력에 대한 의문점이 존재하는 가운데 전략의 유효성 또한 미흡해 보인다. 그리고, 신규 조성 예정 공간과 기존 공간들을 연계한 문화벨트형 문화도시를 추구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이 또한 문화정책 및 제도에 있어 중요한 문화예술 활동 및 주체에 대한 세밀한 파악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부평 음악·융합도시 사업의 현실적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왜, ASCOM과 음악 기반인가?’에 대해 응답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사업적 명분이 필요하며, 사업의 목표와 전략적 방향에 있어 당위가 아닌 분명한 가치 설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 내 사업 참여,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음악 관련 주체 발굴과 조직화, 적극적 소통을 통한 사업 계획 수립에 대한 참여 또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2) 음악산업 관점에서 유효한 사업계획 수립

현재 공개되어 있는 기본계획안에 이미 음악산업적 전략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부평구에서도 부평 음악·융합도시 사업에 있어 산업적 영향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음악산업은 매우 복잡다단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지 않으면 산업적 유효함을 획득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단순 지원사업의 성격이 아닌 부평 음악·융합도시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음악 산업적 영향력에 대한 분명한 설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음악 장르적 선택, 생산과 소비 영역 중 정책적 우선순위 설정, 경제성과 수익성 실현을 위한 분명한 전략 수립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음악융합도시 사업의 유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인해 발생하는 가치가 지역 주체들에게 선순환 구조로 분배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 또한 필수적이라 하겠다.

3) 지역 기반 자생성 획득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 구축

앞서 홍대앞 문화예술생태계의 변화과정에 대해 기술하면서 ‘협치-거버넌스’ 구조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민관, 민민 거버넌스 구조의 중요성은 문화도시, 문화기반 지역 재생 사업의 지역성과 자생성을 담보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견고하고 실질적인 거버넌스 구조 구축은 하드웨어 조성 단계 이전 계획단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업의 참여, 수혜 주체들을 파악하고 조직화하여 민민거버넌스를 지원하고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계획 단계에서 반영하며, 이러한 계획을 기반으로 하드웨어 설계와 조성이 진행되어야만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신규로 공간을 조성하고 문화벨트를 구축한 이후 사업 실행 단계에서 공간 운영, 프로그램 실행의 권한을 민민 거버넌스 체제에 부여하는 등 높은 수준의 민관 거버넌스를 실현할 수 있을 때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역성’과 ‘자생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현재 국내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평 음악·융합도시 사업과 같은 행정 주도적 문화도시 사업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국내 행정 주체의 문화예술에 대한 미흡한 인식수준과 행정 주도형 Top Down 방식으로 인해 현장, 주민과 유리되는 부작용 등에 대한 실제 경험들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계획에서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사업의 실패로 인한 책임은 지역사회 전체가 지게 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전까지 일부 세력의 주도로 촉발된 여러 공공사업의 실패로 인한 사회적 타격을 여러번 겪어왔다. 마찬가지로 부평 음악·융합도시 사업 또한 공공의 자원인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만큼 실효성있는 성과를 거두어 사업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는 좋은 사례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리고, 부평 음악·융합도시와 같은 공공의 문화영역 지원사업들이 대기업 자본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한국 음악산업의 불균형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기를 바람 또한 갖고 있다. 자본의 논리로 일관되는 문화산업은 오로지 상품성 중심의 가치 설정으로 인해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고, 현재 한국 음악시장의 상황 또한 이와 유사하다 생각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부평 음악·융합도시가 ‘음악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 문화도시 창출’이라는 사업 목표를 제대로 실현하여 척박한 한국 음악시장의 대안적 지역 모델로 자리잡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부평, ‘문화적’ 도시로 가는 길
- 부평 문화도시 사업추진에서의 쟁점

추미경
((사)문화다움 대표)

1. 세계의 문화도시, 한국의 문화도시

문화도시 패러다임은 국제적으로는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국내에서는 2000년대 전후로 확산되기 시작하여 국내에서는 이제 약 15년 정도의 사회적 경험을 쌓고 있다. 이제 ‘문화’를 도시발전의 중요한 화두로 삼는 것은 그리 새로운 것도 아니며, 오히려 문화를 통한 도시발전의 구체적 과정과 실행에서의 접점이 주목되는 단계라 하겠다. 그런데, 문화都市는 국내에서 내발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국제적 경향을 도입하여 국내 정책으로 적용하는 과정과 연동되어 있다. 때문에 먼저 문화도시 관련 역사적 전개와 한국에서의 추진현황을 맥락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부평 문화도시 사업이 어떤 지점에 서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국제적으로 문화都市는 유럽 문화를 보존, 활성화하여 유럽인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자부심을 고양하고 자국 또는 유럽 지역의 문화관광 효과성을 높이 고자 1985년 시작된 유럽문화도시 지정제도로부터 그 패러다임이 확산되었다. 유럽문화都市는 2005년 이후 유럽문화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 ECOC)로 명칭을 바꾸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데, 유럽도시 간 선정 경쟁을 유발하며 문화정체성을 보여주는 이벤트성 문화 프로젝트로 경도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는 가운데 점차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과 지역문화 창조 등의 내용으로 변화하는 제도 자체의 진화와 함께 유럽문화수도 브랜드를 구축해가고 있다.

한편, 문화도시 제도로 구현되는 문화 보존 및 활성화 프로젝트 중심의 단위 사업적 접근을 넘어 도시 전반의 문화를 창조적으로 재구성하고 활용하는 창의적 도시계획과 도시운영을 강조하는 창조도시 패러다임이 2000년 전후로 확산되기 시작하여 국내에서도 2010년 전후 창조도시로의 전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적이 있다. 창조도시 패러다임은 창조계급의 중요성을 역설한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 도시민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활동하게 하는 유기체로서의 창조도시론을 제시한 찰스 랜드리(Charles Landry), 문화와 경제를 융합하여 문화적 생산도시로 탈바꿈하는 ‘창조하는 도시’론의 사사키 마사유키(佐佐木雅幸) 등이 그 담론을 선도하면서 문화도시보다 확장된 패러다임으로 전 세계 도시들로 확산되어 왔다. 국내에서는 창조도시가 문화도시를 대체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듯하다가 현 정부의 창조경제론과 함께 슬그머니 사라진 상황이다.

문화도시와 창조도시 간의 비교를 라도삼(2013)은 분명하게 구분지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문화도시가 문화의 돌봄, 즉 보전과 육성에 초점을 맞추며 도시가 갖추어야 할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것이라면, 창조도시는 문화라는 콘텐츠를 활용, 어떻게 하면 도시의 재생이나 성장(revitalization)을 이룰 것인가란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때문에 전자가 문화적, 쉽게 말해 정체감 있는 도시의 경관이나 문화적 요소를 중시하는 도시의 설계, 관리·운영을 중시한다면, 후자는 도시의 재생이나 성장에 필요한 요소의 관리, 즉 창조적인 자원(인력이나 기업, 시장 등)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적 특성과 요소를 갖출 것인가가 중심이 된다. 쉽게 말해 문화도시가 갖추어야 할 경관적 요소는 창조도시에서는 창조자원의 유치와 육성을 위한 배경(backgrounds) 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다.

창조도시 패러다임의 저변에는 산업자원이 인간자원(Human Sources)로 진화했다는 점, 수목적인 정주환경보다는 디지털 리즘적 환경이 중요시해졌다는 점 등 다양한 이유가 있으나, 근본적인 것은 투자할 자원을 상실했다는 점과 이를 찾기 위해 다양한 파생상품을 찾았던 금융자본이 그 저변에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창조도시는 그 성장배경이었던 금융자본 위기와 더불어 서서히 다른 흐름과 결합하고 있는데 소위 공동체주의라는 새로운 흐름이다.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공유’(sharing)를 모태로 한 공동체주의는 ‘경쟁’이나 ‘세계적 표준’(global standard), ‘특정 누구(창조적 계급)를 위한 환경의 제시와 삶’ 보다는, ‘같이 살고’, ‘특화되며’, 바로 ‘자신을 위한 삶’을 제시하고 강조한다.

한국에서 문화都市는 지자체 실행 이후 국가 및 개별 지자체가 문화의 시대라는 환경변화와 국제적 문화도시 패러다임의 영향 속에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하나로 채택되었고, 대체로는 하향식 정책으로 추진되면서 지역사회로부터의 내발적 필요가 아닌 외부적 정책 요구에 의해 추진되기 시작했다는 공통된 기반을 가지고 있다²⁾. 때문에 문화도시 개념과 실체는 늘 정책의

1) 라도삼(2013), 「새로운 패러다임, 문화도시의 가능성」, 『문화도시 문화마을 포럼-전주포럼』, 문화체육관광부.

2)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 부천시를 비롯해 서울, 춘천, 강릉 등 지자체 단위로 문화도시 전략이 구사되는 가운데, 국가의 정책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라 하겠다. 2000년 도시계획법에 ‘문화도시’가 시범도시 유형으로 처음 정책적으로 등장하였고,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광주를 문화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후, 참여정부 시기에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2004~)가 추진되면서 국가의 정책으로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시작으로 정치적 요소가 일정하게 개입된 가운데, 부산, 경주, 전주, 공주부여가 국가균형발전의 맥락에서 지역거점 문화도시가 국책사업으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화두로 확산되었고, 도시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또한 문화도시 정책이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문화도시는 곧 문화관련 공간, 시설,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도시의 삶과는 동떨어진 특별한 무엇으로 여겨진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한국에서 문화도시는 창조도시 패러다임으로 이전되었다가 문화도시와 창조도시가 조합되어 창조적 문화도시 전략으로 재구성되기도 하며, 최근 공유도시로까지 담론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전개과정 속에서 문화도시는 등장하여 실체도 구축하기 전에 지나간 담론으로 전략하기도 했다.

그리고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시행과 함께 한국 지역문화지형에 문화도시 담론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문화도시 관련 사업추진에서의 시행착오 및 관련 패러다임 변화 등을 수용하여 그동안 국가가 나서 문화도시를 조성하였던 것과는 달리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 지역 스스로 문화도시 기반을 만들고 이를 국가가 승인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즉, 문화도시를 선언하고 추진하기보다는 지역이 문화도시의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실질적 문화도시로 인증을 얻는 체계로 변화하고 있다. 이 정책은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구체화되어 2014년에 남원을 시작으로 2015년 기준 7개 문화도시와 13개의 문화마을이 선정되었고, 2016년에도 다수의 문화도시, 문화마을이 선정된 상태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 2016년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문화도시 사업이 위치하고 있다. 때문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도시는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문화도시 담론을 통해 문화를 통한 도시의 발전의 방향과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또 한국 지역문화지형의 진화가 부평구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읽어내면서 그 추진방향과 내용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평 문화도시 추진과정의 몇 가지 쟁점을 정리하였다.

2. 부평, 문화도시 비전은 진화하고 있는 문화도시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추진되는 문화도시는 유럽문화수도에서 말하는 문화도시 개념을 참조하고 있으면서도 창조도시, 공유도시로 확장되고 있는 개념을 부분적으로 담고 있다. 또한 문화도시 추진방식에서도 과거와 달리 지역이 스스로 문화도시의 지향가치와 실현방법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부평 문화도시 추진의 정책적 근거가 되는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맥락적으로는 한국사회의 문화도시 담론을 실천적으로 재편하는 지점에 있지만 정책 자체는 이를 충분하게 담아내고 있지는 않다. 우선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목적상에서도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 지역 자체를 브랜드화하여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함³⁾이라고 좁게 제시되고 있다. 이보다 구체적인 자료⁴⁾에는 문화도시 추진과정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문화도시 개념 및 주요 사업내용 등이 담겨 있다.

문화도시 10년, 그리고 새로운 10년을 위한 제언 11

chapter 02. 문화도시 새로운 10년

2-2. 새로운 문화도시 정책과 사업

새로운 문화도시의 사업 개념

새로운 문화도시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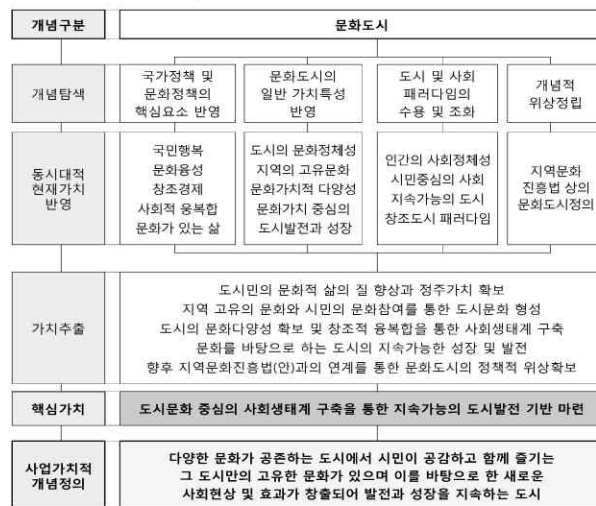
● 개념정의

- 『문화도시』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에서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즐기는 그 도시만의 고유한 문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회현상 및 효과가 창출되어 발전과 성장을 지속하는 도시

● 핵심가치

- 도시문화 중심의 사회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의 도시 발전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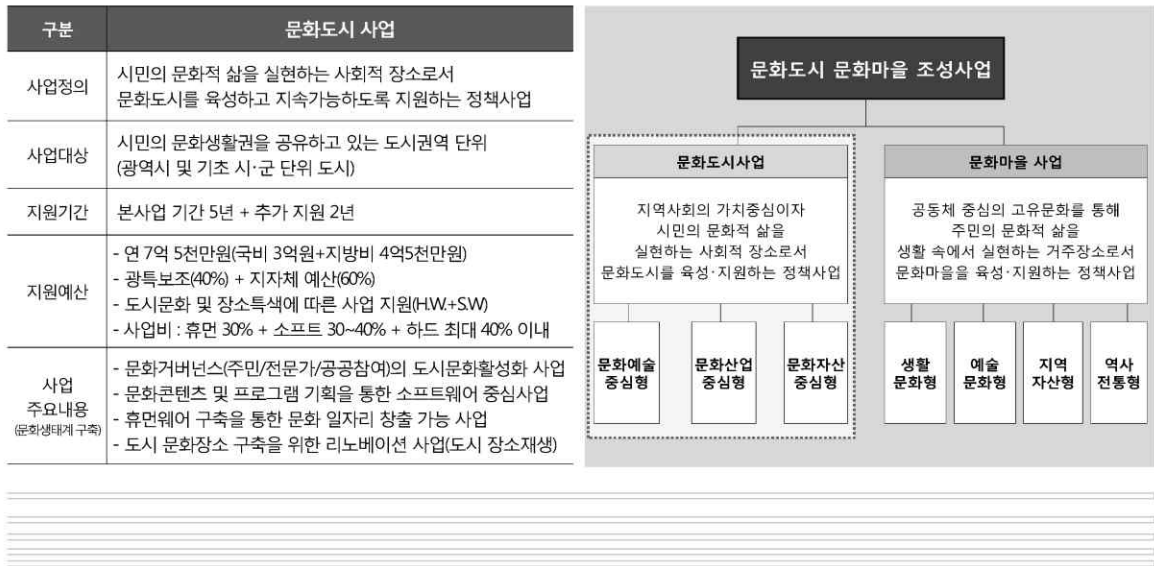


3) 문화체육관광부(2015), 문화특화지역사업(문화도시 문화마을) 조성현황 자료

4) 조광호(2015), 「문화도시 10년, 그리고 새로운 10년을 위한 제언」, 『문화도시 사업의 정책방향 및 사례』, 2015 1차 부평문화포럼 자료집-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 사업개요

- 문화적 삶을 바탕으로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을 만들어가는 도시와 마을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역 문화융성의 정책사업



그렇지만 현재 논의되는 문화도시 개념이 장르나 영역 중심의 단위사업을 넘어 전반적 도시문화전략으로 확장된 것에 비해 문화도시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유형 구분에서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자산 중심형 문화도시와 생활문화형, 예술문화형, 지역자산형, 역사전통형 문화마을로 기존의 문화도시 사업추진방식처럼 예술, 산업, 전통, 생활 등 영역별 특화를 강조하고 있어 확장된 문화도시 개념이 사업유형으로 이어지는 지점에서 간극이 있다. 아마도 문화특화지역사업이 향후 실질적 문화도시로 인증을 얻기 전 예비적 사업으로 위치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현재의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 문화마을) 정책이 도시문화 전반의 전략으로 확장된 새로운 문화도시로 향해가는 과정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당장의 사업에서는 자칫 장르 중심의 문화산업 활성화가 문화도시 브랜드로 단순 매칭되는 과거와 같은 오류를 범하기 쉽다. 2013년 현재의 문화도시 문화마을 사업을 준비하면서 이같은 문제의식은 제기된 바 있다.

장르로서 관련 인프라를 도시 내로 확장하는 것을 문화도시의 전략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도시의 내로 문화적인 전략을 확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이 점은 문화도시를 설계함에 있어 마지막 단추를 끼게 한다. 문화도시의 전략은 문화도시 원류와 창조도시로 진화하는 과정, 새로운 공동체주의로 확장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 때문에 지역의 창조적 발전과 이를 위한 특화적·정체적 발전이 핵심요건이 된다. 그리고 그 전략은 장르적인 전략이 아닌, 도시전체를 혁신하는 도시관리계획이자 발전전략이 되어야 한다. 때문에, 문화도시론은 단지 장르적인 설계에서 벗어나 도시적인 설계, 도시의 현재적 정체성과 특화성을 발전하는 전략이자 개념으로 거듭나야 한다.⁵⁾

그렇다면 현재 부평이 문화도시 비전으로 삼고 있는 음악·융합도시의 지향가치나 추진방법에서 이러한 변화된 문화도시 개념과 전략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새로운 문화도시는 다양한 문화의 공존 속에서도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효과가 만들어지면서 성장과 발전을 지속하는 도시이다. 그 핵심가치는 장르적 특화나 차별적 문화자원 개발을 넘어 도시문화 중심의 사회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문화특화지역 사업은 도시문화의 기반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문화 브랜드화 및 활성화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로만 국한하지 말고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그 지향가치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평 문화도시 사업추진에서 이 지점이 검토되어야 한다.

부평 문화도시 비전으로 삼고 있는 음악·융합도시는 부평의 근현대 자원을 잘 해석, 특화하고 있지만 부평의 현재 지역문화, 생활문화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인지, 또 부평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산업적 요소로 연계될 수 있는 것인지, 부평이라는 도시 전반의 문화와 감성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섬세한 분석과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음악·융합도시가 단순히 대중음악산업의 기반을 물리적으로 구축하는 것으로 그 가치가 구현된다고 오해하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찰스 랜드리⁶⁾의 말처럼 도시는 살아있는 예술작품과도 같아서 부평이 지닌 자원으로부터 어떻게 부평의 매력을 다시 살리고 역할을 재구조화 할 것인지에 대한 창의적이고 문화적인 접근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5) 라도삼(2013), 「새로운 패러다임, 문화도시의 가능성」, 『문화도시 문화마을 포럼-전주포럼』, 문화체육관광부

3.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사업인가? 사업을 위한 문화도시인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문화도시 개념은 매우 복잡적이다. 문화적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한 문화 프로젝트로부터 도시민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활동하게 하는 유기체이자 문화와 경제가 융합된 문화적 생산도시로서의 계획과 과정의 설계, 도시문화를 사회자본으로 공유하는 공동체 활동기반의 구축 등이 포함된다.

이제 막 시작된 부평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연 7.5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5~7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이다. 문화를 통한 도시발전의 담론이 문화도시에서 창조도시로 공유도시로 변모하는 가운데 한국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문화도시가 이 모든 변화와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문화도시전략임을 고려한다면 동 사업은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기반 다지기 단계의 정지(整地)작업과도 같은 것이다. 따라서 부평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사업으로서 포지셔닝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문화도시로서의 명성을 쌓았거나, 지금 쌓고 있는 많은 도시들은 최소 수십년 이상의 일관된 노력 속에서 가능했던 일이다. 축제와 같은 문화행사로 시작해서 문화도시 반열에 들었던, 예술을 매개한 도시재생으로 오랜 경험을 축적하면서 문화도시로 거듭 났든, 생태적 환경기반을 도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이끌어내었던 어떤 경우에도 수십년 이상의 지난하고 일관된 추진의 과정이 수반되었다.

부평 문화都市는 이제 막 비전을 시민들과 함께 확정하면서 세부사업들을 재구조화하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고려한 기반을 만들기 시작해야 하는 단계이다. 때문에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지점은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사업인가? 사업을 위한 문화도시 브랜드인가?라는 것이다. 현재 제시된 부평 음악융합도시 계획 안에는 사업의 아이템이 있을 뿐 개별 사업의 지향가치와 과정의 설계, 추진단계 설정 및 사업 간 관계망이 잘 드러나고 있지 않다. 때문에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사업구성에는 초점이 분명하지만 도시의 문화로 구축되기 위한 진화의 단계로 연결고리가 보이지는 않는다. 때문에 자칫 사업을 위한 문화도시로 귀결될 가능성이 짙어 보인다. 현재의 문화도시 사업은 과정을 창의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사업이다. 과정이 창의적이고 문화적일 때 결과는 자연스럽게 창의적 문

화도시의 요소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사업은 과정보다는 결과 중심으로, 문화도시 가치보다는 문화도시 사업의 성과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다.

문화도시의 기반은 무엇인가? 무엇을 창조하고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이루어내는 핵심 전략과 주체는 누구인가? 부평의 문화도시 지향가치는 문화특화지역 사업 너머에 있는 보다 궁극적이고 장기적이 시각 속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인천시와의 정책적 고려도 중요하다. 문화도시 부평이 문화도시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문화도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이 지점은 선언으로만 해소되지 않고 매우 지난한 소통과 교류, 공론화, 실행에서의 시행착오와 개선의 연속 등 매우 복잡한 과정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

문화도시라는 명칭이 이미 한국에서 식상해졌지만 실체에 있어서는 좋은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여전히 문화도시로 가는 길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궁금함이 가득한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과제이다. 또한 문화도시는 처음에 기본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완벽한 계획 하에 집행만 하면 되는 그런 기계적 관계가 아니다.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이는 유기체일 뿐만 아니라 문화도시로 구현되는 과정도 다양하게 변화한다. 그 변수는 정권변화와 같은 정치적 요소, 문화도시를 바라보는 관점변화의 요소, 지역사회 내부의 이해관계 요소, 중앙과 지역의 관계변화 요소 등 다양한 변화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한편, 문화도시 10년~15년이 한국사회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것은 아니며, 적어도 문화도시가 어떠한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사회적으로 던져왔다. 문화도시에 대한 개념을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하면서 문화도시의 상을 규정하고자 했고, 그에 상응한 성과를 만들고자 시도하면서 문화도시 구현방식에서 성과, 시행착오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문제의식, 성과와 시행착오, 과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공감대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대로 추진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불감증이 커져가고 있다는 점이 이슈이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야 제대로 문화도시, 문화마을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만들

고, 지역사회에서도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외부로부터 무엇인가를 도입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 내부로부터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문화도시, 문화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시작점에 다시 서있다고 할 수 있다. 담론으로 존재하는 정책 패러다임에 의존하기보다는 구체적 현실에 발을 딛고 한국사회, 지역사회에 실제로 필요한 문화도시의 상을 만들고 구축하는 과정이 이제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

4. 부평 문화도시포럼에서 나온 중요한 쟁점들

- 문화도시 공론장은 시작되었다!

부평이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첫걸음으로 2015년 4회 운영한 부평문화포럼에는 부평 문화도시를 향한 좋은 제안들이 담겨있다. 아직은 전문가 의견 중심이므로 부평구민 및 인천시민들과의 소통 및 공론화의 무수한 과정들이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제시된 소중한 의견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참조할 필요가 있다. 포럼에서는 부평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문화도시 운영 지속성에 대한 방안, 부평음악융합도시 비전에 대한 점검, 향후 문화도시의 미래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전반적 항목을 다루고 있다.

먼저, 1차 포럼에서는 2016년 문화도시 추진이 과거와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도삼은 동 사업이 문화도시 조성 자체보다는 문화도시화 문제의식을 담기 위한 사업임을 강조, 그에 부합하는 전략적 사업추진의 중요성을 제안한다.

세부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이 사업의 특성에 주목해 주었음 한다. 이 사업은 이전 조 단위의 예산이 계획되었던 문화도시 사업과는 다르다. 이 사업은 연 7억5천만 원 정도의 적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주요한 사업 내용 또한 △문화거버넌스 형성, △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 기획, △문화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휴먼웨어 구축사업,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사업 등이다. 그런 만큼, 무엇보다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을 문화도시 조성이 목적을 달성하는 사업이 아니라,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혹은 문화도시화라는 문제의식을 담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았음 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사업비가 7억5천만 원에 불과한 만큼 △매우 전략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사용했으면 하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우선 투자

했음 하고, △도시 차원에서 문제해결보다는 문제제기용에 주력해 사업이 추진되었음 하는 바람이다. 과연 이것이 무엇일지는 이번 포럼과 같은 전략적인 전문가 검토과정에서 또 부평지역 내 관계자들 토론 속에서 구체화 될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략적인 정책체계를 어떻게 짤 것인가 또한 고민 해 주었음 한다. 본 사업은 ‘본 사업 기간 5년에 추가지원 2년’ 이 붙어 있는 총7년의 사업이다. 지자체 장 선거 등 정치적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며, 언제든 시대적 흐름의 변화 등으로 그 관심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다. 그런 만큼,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고 가능한 시스템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도시문화’가 도시 내 사람들의 행태를 담고 있는 용어이기에 결국은 그 사람들의 행태를 바꾸어 야 한다. 부평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행태를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 부평의 고민은 아마도 이 지점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⁶⁾

또한 손경년과 안이영노는 문화도시 정책방향을 부평음악융합도시를 구성하는 사람(시민)들을 길러내고 그들의 주체적 참여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에 주목해야 함을 제안한다.

그간의 정부지원사업과 차이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 주민협의체 또는 지역문화재단, 문화도시자문평가단 등 추진체계를 통해 **과정을 통한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적어도 부평구가 문화도시로서의 요건을 형성하려면,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람(시민)이 주체가 되어 창의적 활동을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가 제공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왜 문화도시이며, 왜 이것이 필요한지, 그래서 어떤 실천적 정책들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한 도시가 되어야 한다. **개발의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인 도시이며,** 도시 마다 내재하고 있는 문제를 창조적 과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도시가 되었을 때 음악도시 부평은 음악적 역사성과 장소성, 그리고 **과정을 통해 획득한 민주적 시민의 성숙이 문화도시로서의 건실한 요건으로 작동할 것이다.**⁷⁾

1. 문화도시 사업이 철학을 가져야 한다. **시민들이 문화를 즐기는 도시라기 보다, 사람을 길러 문화를 실천하는 도시를 만들어나간다.**
2. 정책과 행정지원의 위치를 재확인해야 한다. 문화都市는 장기적으로 조성계획을 세우되, 자연발생에 가까운 시민참여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데 철저히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도시문화를 ‘형성’한다고 말한다. 정책적

6) 라도삼(2015), 「2016년 부평 문화도시 추진에 앞서」, 『문화도시 사업의 정책방향 및 사례』, 2015 1차 부평문화포럼 자료집-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7) 손경년(2015), 『문화도시 사업의 정책방향 및 사례』, 2015 1차 부평문화포럼 자료집-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3. 프로그램 발굴시 점검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문화특화도시 조성사업은 인프라와 망, 사회적 파이버(Fiber)를 의식적으로 구축하는 노력이고, 정부가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공 영역에서 시민활동을 촉진하고 견인하려는 시도다. 따라서 첫째 시민들에게 자극과 캠페인이 되는 프로그램, 둘째 선도 사례가 되는 시범 프로그램, 셋째 가장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주민눈높이에 맞고 문턱이 낮은 단순명료한 시민 프로그램, 넷째 기간활동가인 핵심 엔진을 길러 조직과 거버넌스, 그리고 인력양성에 이바지하는 휴먼웨어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리고 이중에서도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를 정한다.⁸⁾

2차 포럼에서는 부평 문화도시의 자생적 운영과 지속성에 대해 다루었다. 이 한호는 문화도시 지속적 성장의 시작은 가치와 철학이며 그 동력은 시스템과 사람임을 강조하였다, 박은실은 자생적 운영과 지속성 확보방안으로 창조생태계 조성, 도시공간과 문화계획의 통합적 접근, 민관협력/시민참여, 네트워크의 구축 등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통합적 문화계획 및 민관협력/시민참여 부분만 발췌하면 다음⁹⁾과 같다.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문화계획(cultural Planning)적 접근방식이 필요

- 대규모 개발 위주의 물리적 접근방식을 넘어서 소프트웨어와 사람 중심의 도시개발 방식
- 물적, 인적, 자원의 프로그램별로 통합적이고 문화적인 도시문화환경의 개발.
- 창의인재를 유인하는 전략으로서 창의산업의 생태계 조성, 문화예술과 산업의 융·복합지구 조성방안, 복합용도지구 조성방안, 문화환경계 획을 통한 통합계획과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등
- 창조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창의도시 육성. 영역별 창의성의 상호 증진을 위한 지역, 도시, 지구별 산업 및 제도개선, 조성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 정책방안
- 특성과 발전을 통해 성장을 꾀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창의경제의 최대 효과가 도시와 지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

문화자원의 전략적 활용



허유정, 문화계획 모델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석사논문, 2013³⁴

- 8) 안이영노(2015), 『문화도시 사업의 정책방향 및 사례』, 2015 1차 부평문화포럼 자료집-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 9) 박은실(2015), 「사례를 통해 살펴본 문화도시 지속방안」, 『문화도시의 자생적 운영은 가능한가』, 2015 2차 부평문화포럼 자료집-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03.3-1. 민관협력 모델과 시민참여 프로세스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

민관거버넌스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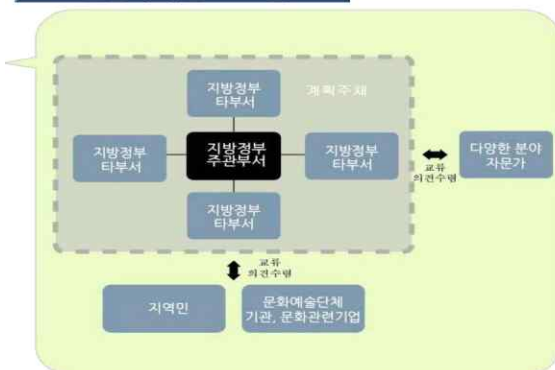


허유정, 추계예술대학교 석사논문,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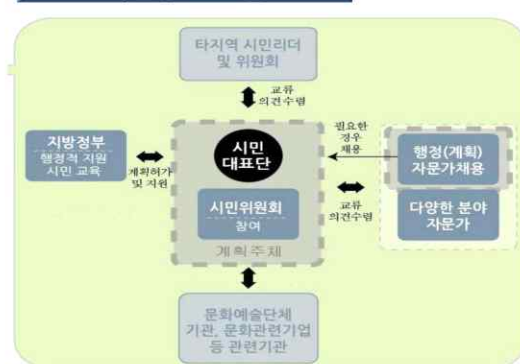
03.3-2. 민관협력 모델과 시민참여 프로세스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

민관거버넌스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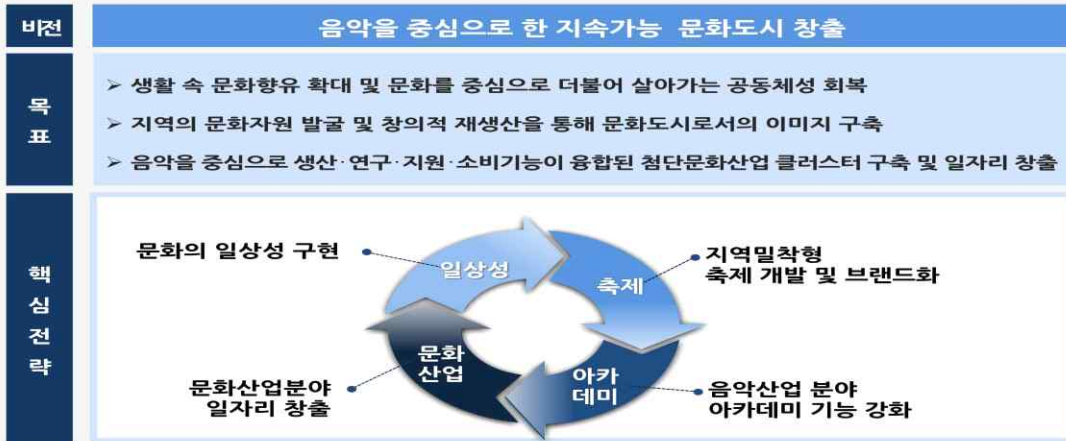
시민주도 모델



- 공동체(커뮤니티)형성, 연대활동(네트워킹) 등 휴먼웨어 중심의 문화활동
- 지역내 협치(거버넌스)와 민관사 협력(제3섹터), 참여자활동(웹2.0, 집단지성, 대중지혜 방식), 주민주도
- 민간의 조직력(창의적인 NGO, NPO), 인적자원의 양성(교육, 상호학습, 지식동아리)을 통해 문화도시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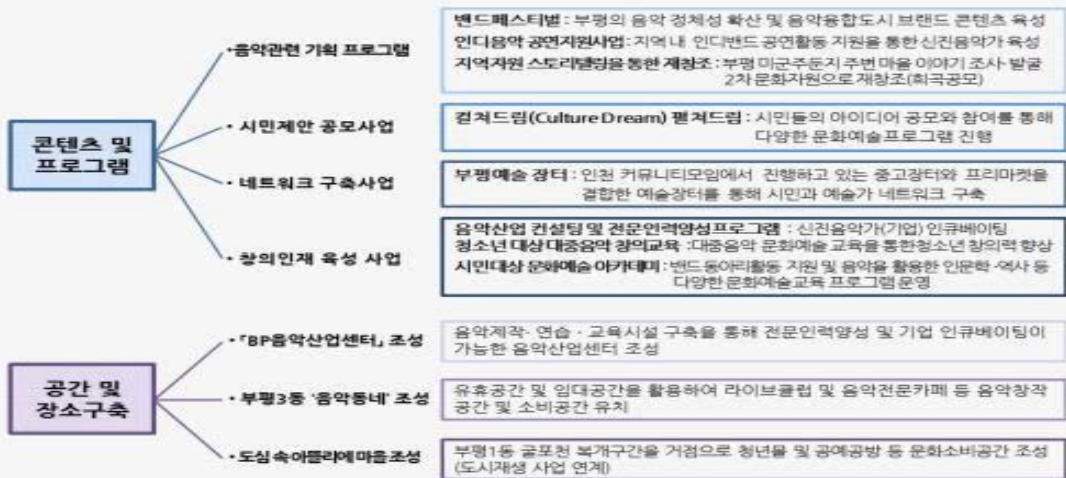
3차 포럼에서는 ‘왜 부평음악융합도시인가?’라는 주제로 부평 문화도시의 비전을 둘러싼 이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주둔한 미군해병대 지원사령부(ASCOM)와 기지촌 일대에 꽃피웠던 대중음악의 전통, 70만명이 방문하는 부평풍물대축제 등의 자원을 바탕으로 부평음악융합도시 창출의 가능성과 고려지점 등이 논의되었다. 먼저 부평문화재단이 발표한 음악융합도시의 개요¹⁰⁾는 다음과 같다.

10) 고동희(2015), 「새로운 변화의 시작, 부평 음악융합도시」, 『왜 부평 음악융합도시인가』, 2015 3차 부평문화포럼 자료집-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20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 내용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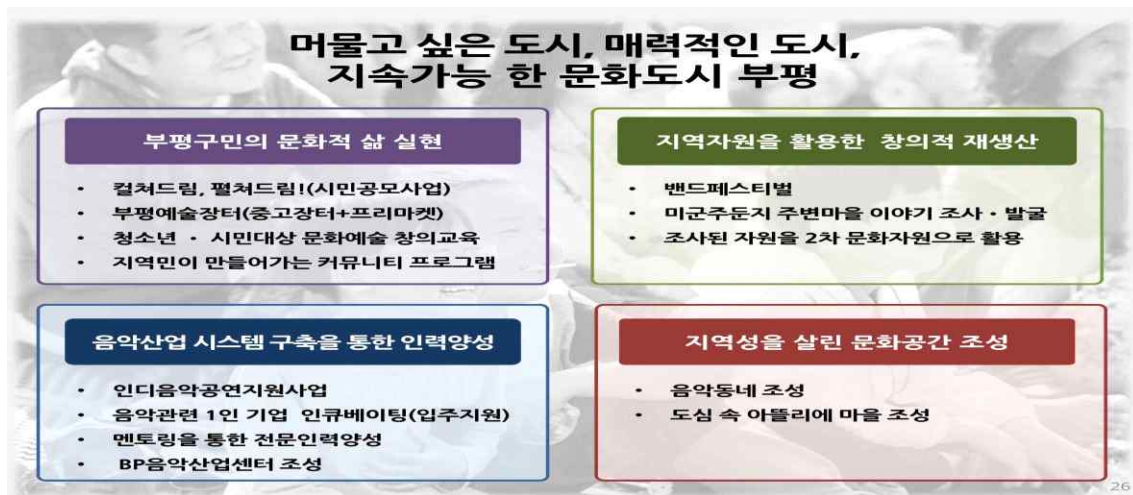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 내용

부평문화벨트 조성계획 수립

- 사업목적**: BP음악산업센터, 부평3동 음악동네, 부평1동 골포천 복개구간 등 3개의 거점공간을 연계한 문화벨트 조성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 방안 수립
- 사업 주요내용**: 'BP음악산업센터'를 중심으로 생산·연구·지원·소비기능이 복합된 문화산업 클러스터 전략 개발
- 사업 기대효과**:
 - 공업도시의 이미지에서 문화산업도시 이미지로의 변화
 - 부평 문화산업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 시설 및 장소	추진내용	주요기능
①BP음악산업센터 (현 부평아트하우스)	- 음반산업 지원 및 창작환경조성 - 음악관련 기업 입주공간 지원	생산·지원·교육기능
②부평아트센터	- 공연장 및 밴드페스티벌 운영	매개기능
④부평3동 음악동네	- 클럽 및 음악카페 유치 - 연습실 조성	음악중심 생산·소비기능(클럽, 카페)
③백운역 철로변 생태공원 ⑤부평공원	- 버스킹 공연 장소 - 휴식공간이자 커뮤니티 공간	커뮤니티기능
⑥부평 아틀리에 마을 (부평1동 골포천 복개 구간)	- 시각·공예 장르를 중심으로 한 청년들 조성	공예·시각예술 중심 소비기능, 레지던스 기능

22



부평의 부존자원인 풍물대축제와 대중음악전통의 유산을 융합하여 현재의 부평 음악문화로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수립하여 인천 지역 전문가와 관련 전문가들의 공감을 구축해가고 있는 단계이다. 한편 비전 수립에서의 고려지점들은 크게 대중음악의 전통이 현재의 지역정체성과 과연 만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만나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 대중음악의 아이템 공급형 사업보다는 시민의 음악활동과 결합되어 대중음악가와 시민음악활동이 함께 부평의 음악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다. 이와 관련한 문제의식이 제기된 바 있다.

우선은 전통, 혹은 지역 정체성과 관련한 것이다. 부평미군부대에서 유래한 대중음악과 부평의 친연성에 대한 근거의 문제를 조금 더 숙고해야 한다. 여러 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통은 현재의 삶의 조건이나 구조 속에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때 살아있는 전통이 될 수 있다. 에스컴 시절 부평의 음악홀은 그 전통이 끊어진지 오랜 시간이 되었다. 미군부대의 실질적 소멸과 부평의 생활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말이 과거의 그런 자취를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과거의 것을 오늘날 어떻게 해석하고 현재화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여기에 서 경계할 것은 과거의 신화화이다. 현재의 문제를 과거의 존재를 끌어들여 덮어버리고 지금 이곳의 삶의 문제를 과거와 직접적으로 이어내려는 시도는 위험하다. 그것이 위험한 이유는 대중(부평 내외의 시민들)의 지속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 뿐만 아니라 과거가 현재의 문제를 덮어씌워 현재의 생동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추억 속에만 머물러 있는 과거가 되어서도 안 된다. 현재와는 관계없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추억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

부평이 추진하는 음악도시가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현재화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나는 이런 토론의 과정이 그것의 연장선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는 있으나 과거의 해석과

현재화에 토론의 초점이 조금 더 분명하게 맞춰지고 조금 더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총론에서 음악 내부의 논의로 조금 더 들어가거나 혹은 총론에서 부평과의 연관성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과의 연장선 위에서 음악도시 부평밖에 할 수 없는 것들, 다른 도시와의 명확한 차별성이 조금 더 강조되고 구체화되었으면 한다. 다음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형성이다. 그 주체가 형성되는 것이 꼭 전문가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시민들과 전문가, 기획자들을 어떻게 부평으로 끌고 올 것인지, 아니면 부평에서 키울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구체화되어 제시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시민들은 어떻게 일상적으로 다른 도시와 구별되게 음악의 일상화를 누릴 것인지에 대한 설계도, 혹은 로드맵 같은 것이 함께 제시되었으면 한다.¹¹⁾

4차 포럼에서는 ‘문화도시 부평의 미래’라는 주제로 부평 문화도시 사업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문화특화지역 사업이 제시하는 문화도시 브랜드에 대한 시각과 부평 문화도시 전략 수립의 전제를 종합하는 이야기들이 오갔다. 부평의 문화도시 브랜드 전략에 대해서 권순석은 다음¹²⁾과 같이 부평시민의 삶의 양태와 생활문화로 현재진행형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누구나 인정, 상상, 참여할 수 있는 부평만의 스타일이 중요함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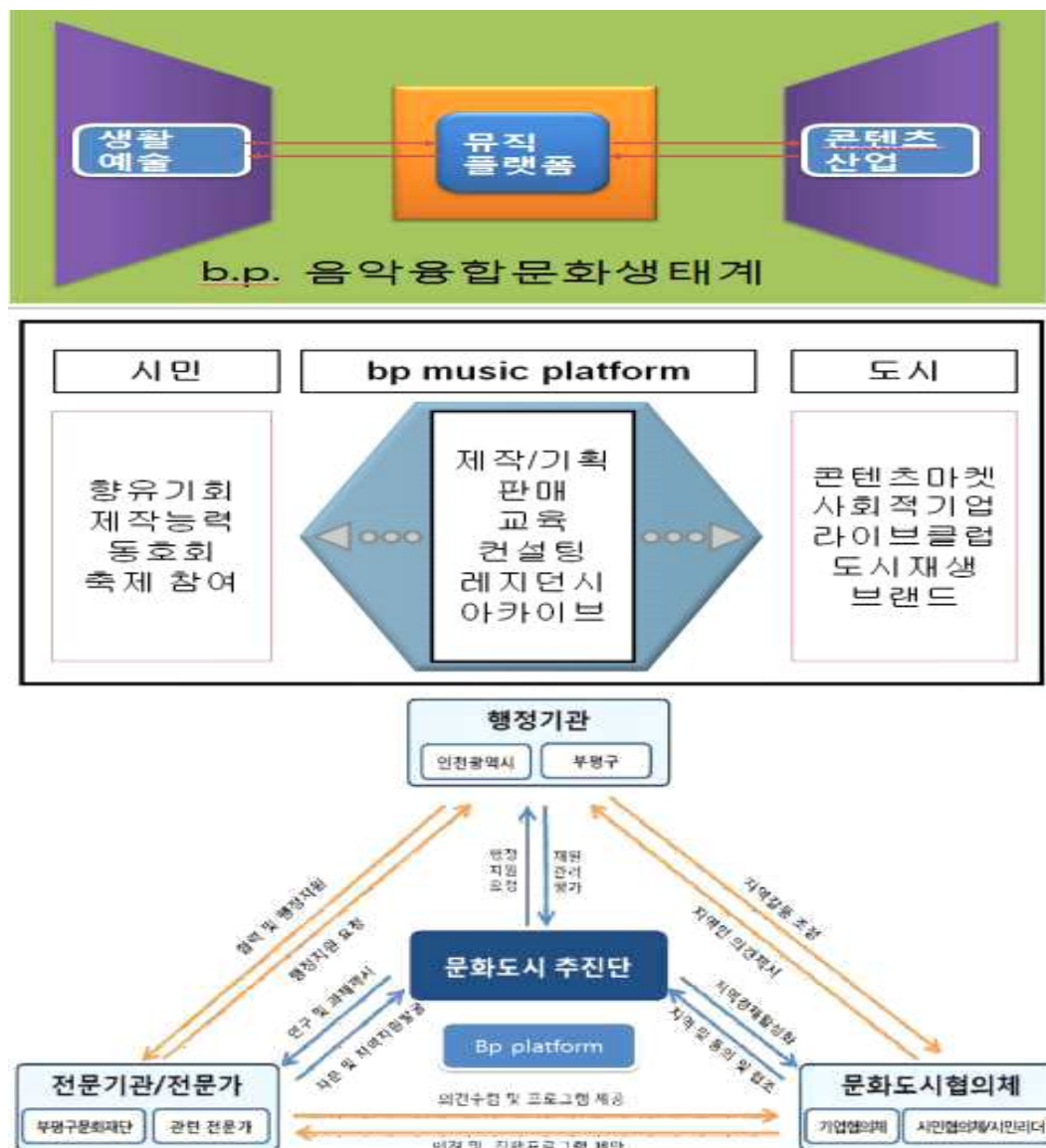
부평의 문화도시 브랜드 전략이 성공하려면?

- ❖ 도시 브랜드는 도시의 상징으로 해당 도시의 정체성을 드러냄
- ❖ 도시 정체성은 흉내 낼 수 없는 것으로 도시민의 삶에 근거해 만들어짐
- ❖ 도시민의 삶의 양태와 생활문화로 현재 진행형의 도시 브랜드, 누구나 인정하고 상상이 가능 한 브랜드가 됨
- ❖ 이는 도시 스타일로서 음악도시 부평의 근거를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두드러진 문화 영역에서 찾아 냈다면 이를 뒷받침해줄 부평 스타일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음
- ❖ 누구나 인정하고 지역민 누구나 참여하며 모두가 상상 가능한 ‘음악(활동)’은 무엇인가
- ❖ 도시 스타일은 풍물, 재즈, 특정장소 등 영역화 된 부분만으로 만들어 지지 않음.
- ❖ 상징적 사례 만들기과 더불어 보편적 가치 인식과 일상에서의 활용이 가능한 음악(활동)으로 지역민들에게 인식 시킬 수 있어야 함

11) 이현식(2015), 『왜 부평 음악융합도시인가』, 2015 3차 부평문화포럼 자료집-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12) 권순석(2015), 「문화도시 브랜드 전략」, 『문화도시 부평의 미래』, 2015 3차 부평문화포럼 자료집-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한편 부평음악융합도시 추진에 있어 김창수는 부평구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보다 입체적인 비전과 실행추진안을 제시하였다. 부평의 지역정체성을 음악자원 뿐만 아니라 인문지리, 역사 및 자연자원, 문화예술자원, 문화활동 특성 등 부평이 지닌 종합적인 문화여건 분석을 토대로 ‘굴포천변에 샘솟는 부평 음악생태도시’라는 비전과 뮤직플랫폼을 구축하여 플랫폼을 마중물로 음악 기반 문화 생태계 조성의 집중과 확산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핵심전략인 뮤직플랫폼 구축과 문화도시 추진체계 구성은 다음¹³⁾과 같다.



13) 김창수(2015), 「부평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략 수립의 전제들」, 『문화도시 부평의 미래』, 2015 3차 부평문화포럼 자료집-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또한 부평 음악융합도시 추진방법에 있어 조주현은 미국 시카고시 문화발전 계획의 사례를 통해 직접민주주의에 기초한 시민들의 참여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시민들과 함께 문화적으로 지역을 계획하는 것에 가치와 방법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안했다.

시카고시 문화업무특별행사부(Department of Cultrural Affairs and Special Events)는 도시의 문화예술 성장기회를 확인하기 위해 2012년 2월 시카고 문화발전계획(Chicago Cultural Plan 2012)에 착수하고, 문화 민주화(시민과 도시 문화비전을 창조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계획과정을 시작하였다. 첫 타운홀 미팅에서 “문화란 무엇입니까?”라고 묻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 4,700명이 넘는 시카고 시민들이 계획과정에 직접 참여하였다. 또 다른 수천 명은 온라인을 통해 참여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2012년 10월 시카고문화발전계획을 발표한다. 시민제안 대표로 도시의 미래에 대한 계획은 누가 그 계획을 수립하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계획과 실행은 분리될 수 없고, 계획한 주체가 자발성을 내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다. 부평의 문화도시는 구청과 재단, 그리고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실행할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을 중심에 두고, 시민이 주체가 되도록, 계획부터 실행까지 함께하는 혁신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문화적으로 계획한다”는 것은 주체적인 시민들과 창의적인 예술이 새롭게 결합해 보다 나은 도시를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지금 세상은 문화예술에게 '나의 문제와 그들의 문제를 뒤섞어 내기'를 통해 새로운 문제해결자로서 창의적인 실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도시 부평의 미래는 문화적으로 계획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방법을 지금 찾는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¹⁴⁾

4차의 부평문화포럼 쟁점 속에는 부평 문화도시 추진에 있어 귀 기울여야 할 제안들이 많다. 포럼을 통한 의견들 중에서 대부분은 부평 시민들과의 공유력을 높이고, 그들이 실제 참여하고 생활 속에서 주체가 될 수 있는 공론의 장과 활동기반 구축에 문화도시 사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적 성과보다는 과정적 성과를 살피고, 그 지난함 속에서 자연스러운 시민들의 문화로 이어질 수 있는 추진방법을 발견하고 시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14) 조주현(2015), 『문화도시 부평의 미래』, 2015 3차 부평문화포럼 자료집-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5. 부평의 도시문화를 만들기 위한 ‘문화적 생각과 행동’ 으로부터

부평 문화도시를 향한 전문가들의 자문은 현 단계에서는 이미 충분하다고 본다. 이제는 부평 문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해 경청한 다양한 의견들을 참조하면서 부평의 상황으로부터 부평이 중심을 잡고 선택하고 집중하는 실천이 시작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것을 넘어 정작 부평이 어디 서부터 누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를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논의 및 실행구조를 구성하여 그것이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가야 한다.

부평 음악융합도시가 살아 움직이는 부평의 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 여러 자문의견들에서 공통으로 제안되었듯이 결국 부평 문화도시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을 통해 사람들이 모이고 길러지고 또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겠지만 결국 사업이나 프로그램 또는 물리적 공간 및 시설보다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사람들 간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며, 그래서 부평 도시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공유된 생각과 행동이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음악융합도시가 살아 움직이는 부평의 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부평에 있는 또는 앞으로 결합하게 될 음악 관련 다양한 주체들이 문화적으로 생각하고, 생활하는 곳이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음악 관련 전문가, 종사자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부평 시민들이 처음부터 전체 과정 속에 들어와 함께 논의하고 만들고 그리고 그들의 일상적 삶에서 부평의 음악문화가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찰스 랜드리는 시민들의 창의력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상상상력 넘치는 해법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런 상황과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모험을 감수해야 하고 민간 부문은 도시 전체에 대한 보다 강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¹⁵⁾고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지닌 시민들,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거버넌스, 예술가와 시민의 결합 등등 지난한 소통과 사회적 합의의 과정, 실행방법에 대한 공동의 모색과 추진, 협력 등이 필수불가결하다. 이를 경제적 행위로만 보면 산업이 되고, 공동체 차원에서

15) 찰스 랜드리, 『크리에이티브 시티 메이킹』, 역사넷, 2009. pp.25~35. 참조하여 부분적 인용.

보면 사회가 되고, 자연환경으로 보면 생태계가 되고, 이 모든 사항들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보면 정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보이지 않지만 부평 문화도시의 운치, 격조, 분위기를 부여하는 신념과 가치체계, 행동으로서의 문화일 것이다¹⁶⁾. 그러므로 제대로 부평의 도시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술, 문화 영역이 주도성을 가지더라도 다양한 부문의 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부평의 문화를 만들기 위한 문화적 생각과 행동이 조직화되지 않는다면 문화도시로 다가가는 한 걸음을 내딛기보다는 문화라는 아이템의 사업을 진행하고 소비하는 차원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높다.

너무나 멋진 부평음악융합도시 문화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공공 부문의 관료들, 민간 부문의 전문가들, 부평 시민들, 그리고 부평 문화도시를 방문하는 여러 주체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비문화적, 또는 반문화적인 생각과 태도로 일을 운영해간다면 짧게는 5~7년 좀 길게는 수십년 후 과연 부평의 도시문화가 어떤 풍경으로 형성될지, 그리고 부평에 있는 다양한 예술, 문화, 기업 관련 공간이나 조직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떠한 지, 그래서 시민들의 생활로 나타나는 도시문화의 활력이나 정서, 삶에 대한 만족도 등은 어떠한 지 상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부평 문화도시의 가치, 활력, 감성, 분위기, 품격 등으로 표현되는 도시문화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이를 추진하는 시민, 예술가, 전문가, 조직, 정부, 기업 등 사람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어떤 신념과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실행하면서 일들을 만들고 운영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제 부평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면서부터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부평이 문화도시를 성공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중요한 철학이자 가치로 삼을 것을 제안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16) 찰스 랜드리, 같은책, pp.25~35. 참조하여 부분적 인용.